

창세기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의 문학적 역동성과 한글 번역

유윤종*

1. 시작하는 말

이 논문은 다의미를 활용한 모호하면서 언어 유희적 성격을 지닌 야누스 평행대구가 작용하는 원리를 소개하고, 그 문학적 역동성을 분석하며, 어떻게 한글로 번역할 것인지를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 가운데 창세기의 3구절(6:3; 15:1b; 49:26a)을 선택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야누스 평행대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중 의미의 발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즉 다의미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그 문학적 역동성을 분석하고 번역의 문제와 연결시킨 연구는 없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창세기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는 위에서 언급한 3구절이 전부다. 야누스 평행대구의 문학적 역동성을 찾고 한글 번역 문제를 위한 본문으로 난해하고 생소한 책을 택하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이 독자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서 한글 번역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에 편하고 공감할 얻기에 수월하다는 점 때문에 창세기를 선택하였다. 미소라 본문과 함께 사용된 한글 번역은 『개역개정』(1998), 『새번역』(2004),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번역』(2005, 이하 ‘주교회의 번역으로 칭함’)이다. 세 번역을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최근에 공적인 권위아래 이루어진 번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영어권의 대표적인 번역들(KJV, NIV, NRSV 등)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약학

구약성서에 나타난 히브리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행대구 (parallelism)와 언어유희(wordplay)이다.¹⁾ 평행대구 및 언어유희의 종류와 양상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새롭게 밝혀진 평행대구는 ‘야누스 평행대구’(janus parallelism)이다. 야누스 평행대구를 처음 발견하고 이름을 붙인 고든(C. H. Gordo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고대 근동 문학 작품에서 평행구조는 매우 미묘하다. 너무나 많아서 수세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구약성서를 분석하였지만, 성서의 모든 부분을 다 밝혀내지 못하였다. 어떤 종류의 평행대구는 매우 정교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단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의미를 지닌 한 단어가 그 사이에 끼여, 하나의 의미는 앞과 평행을 이루고, 다른 하나의 의미는 뒤와 평행을 이룬다.²⁾

고든은 아가서 2:12을 예를 들어 야누스 평행대구를 설명한다.

הַנְּצֻנִים נִרְאוּ בְּאַרְצָא
עַת הַזְּמִיר הַגִּיעַ
וְקוֹל הַתּוֹר נִשְׁמַע בְּאַרְצָנָא

땅에 꽃이 피고

הַזְּמִיר의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이 구절에서 הַזְּמִיר(하자미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호하다. 오늘날은

1) 다음을 보라. 유윤중, “구약성서 히브리 시 평행대구 연구의 최근 동향,” 『기독교신학논총』 40 (2005), 5-28; “언어유희와 아모스의 심판신탁,” *Canon&Culture* 10:1 (2016), 123-46. 언어유희에 대해서는 다음을 추가로 참고하라. 하계상, “창세기 2-3장의 히브리어 이름, 이름, 예름,” 『구약논단』 19 (2013), 144-171; 강승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아가 번역의 개정을 위한 주석적 제안,” 『구약논단』 16 (2010), 93-113.

2) C. H. Gordon, “New Directions,” *The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of Papyrologists* 15 (1978), 59. 유윤중, “구약성서 히브리 시 평행대구 연구의 최근 동향,” 21에서 재인용.

대부분 ‘(새가) 노래할 때’로 번역한다. 하지만 칠십인역은 이 단어를 ‘추수할 때’(καίρος τῆς τομῆς ἐφθάκεν)로 번역한다. 하나의 단어지만 의미가 모호하다. 이에 대하여 고든은 קָצוּרָה가 원래 ‘추수’할 때(pruning season)와 ‘노래’라는 두 의미를 지닌 단어로 본문에서는 양 의미 모두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농업적 의미와 음악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동시에 포함한 것이므로 본문에서의 두 의미는 양쪽 의미를 모두 전하기 위한 시인의 문학적 기법으로 파악하며 고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인은 קָצוּרָה의 이중 의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 단어는 이전 행과는 הַמַּלְאָכִים(하니짜님, 꽃이 핌)으로 연결되어 추수를 기다리는 장면을, 다음의 행과는 הַחֹרֶן הַלָּוִי(브콜 하토르, 비둘기의 소리)로 연결되어 비둘기가 노래하는 장면을 그려낸다.

고든은 이 문학적 기법을 시인이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야누스 평행대구’(janus paraellism)라고 불렀다.³⁾ 이 기법은 또한 ‘중심축 패턴’(pivot pattern)으로 불리기도 한다.⁴⁾

고든 이후 다수의 학자들이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야누스 평행대구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는 노겔(S. B. Noegel)에 의하여 이루어졌다.⁵⁾ 그의 연구는 율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수메르어, 아카드어, 히타이트어, 우가리트어, 아랍어, 이집트 상형문자로 된 문학작품에서 발견한 예를 다루었다.⁶⁾ 그 외에도 렌드스버그(G. A. Rendsburg),⁷⁾ 세레스

3) Gordon, “New Directions,” 59-66. ‘야누스’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문지기의 신으로 앞뒤가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4) Wilfred G. E. Watson, “The Pivot Pattern in Hebrew, Ugaritic and Akkadian Poetry,” ZAW 68 (1976), 239-53.

5) S. B. Noegel, *Janus Parallelism in the Book of Job*, JSOTSS 22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그의 코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 잘 드러나 있다. Scott B. Noegel, “Janus Parallelism & Its Literary Significance in the Book of Job, with Excurses on the Device in Extra-Jobian and Other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s,”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1995). 노겔은 율기에서 약 43개 정도의 야누스 평행대구를 발견해 제시하였다.

코(A. R. Ceresko),⁸⁾ 쥬무라(D. T. Tsumura),⁹⁾ 바세르(H. Basser),¹⁰⁾ 크셀만(J. S. Kselman)¹¹⁾등이 구약성서에서 다수의 야누스 평행대구를 찾아내었다. 고대 근동의 광범위한 문학과 구약성서에서 야누스 평행대구가 밝혀짐에 따라 야누스 평행대구는 고대 근동의 시인들에 의해 애용되었던 문학적 기법으로 존재했다고 인정되었다. 따라서 히브리 시를 다룬 교과서에서도 고대 근동의 시인들이 사용했던 문학적 기법으로 자리매김 되었다.¹²⁾ 유사한 기법은 인도의 주요 언어 가운데 하나인 타밀어 문학에서도 나온다.¹³⁾

위에서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야누스 평행대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기법은 히브리어의 다의미(polysemy)를 활용한 언어유희이다.¹⁴⁾ 왜냐하면 하나의 단어에 내포된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활용하기

- 6) S. B. Noegel, "A Janus Parallelism in the Gilgamesh Flood Story," *Acta Sumerologica* 13 (1991), 419-21; "An Asymmetrical Janus Parallelism in the Gilgamesh Flood Story," *Acta Sumerologica* 16 (1994), 306-308; "A Janus Parallelism in the Baal and 'Anat Story',"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21:1 (1995), 91-94; "Another Janus Parallelism in the Atra-Hasis Epic," *Acta Summerologica* 17 (1995), 342-44; *Janus Parallelism*, 156-182.
- 7) G. A. Rendsburg, "Janus Parallelism in Genesis 49:26," *JBL* 99 (1980), 291-93; "Double Polysemy in Genesis 49:6 and Job 3:6," *CBQ* 44 (1982), 48-51; "Notes on Genesis XV," *VT* 42:2 (1992), 266-72.
- 8) A. R. Ceresko, "Janus Parallelism in Amos's 'Oracles against the Nations' (Amos 1:3-2:16j)," *JBL* 113:3 (1994), 485-90.
- 9) D. T. Tsumura, "Janus Parallelism in Nah. 1:8," *JBL* 102:1 (1983), 109-11; "Janus Parallelism in Hab. 3:4," *VT* 54:1 (2004), 124-28.
- 10) H. Basser, "Did Rashi Notice a Janus Parallelism in Ezek 20:37?,"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8:14 (2008), 2-4.
- 11) J. S. Kselman, "Janus Parallelism in Psalm 75:2," *JBL* 121:33 (2002), 531-32.
- 12) W. G. 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JSOTS 26 (Sheffield: JSOT Press, 1984), 159.
- 13) 야누스 평행대구는 타밀어 문학에서 사용되는 기법인 *Ciṅka nokku utti*와 유사한 것으로 비교된다. Abraham Mariaselvam, *The Song of Songs and Ancient Tamil Love Poems: Poetry and Symbolism*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88), 55, n. 61.
- 14) Walter Herzberg, "Polysemy in the Hebrew Bible," 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79).

때문이다.

둘째, 이 기법은 3행으로 된 시에 나타나며,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2행의 한 단어가 두 의미를 지녀 앞 뒤 행의 의미와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법은 단어의 다의미성을 활용한 기발한 언어유희(polysemic wordplay)로 평행대구 속에 나온다. 이것은 당시 고대근동 지역에서 널리 활용되던 문학적 전통을 빌려와 활용한 것이다.

셋째, 이 기법은 모호함(ambiguities)을 문학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라베(P. R. Raabe)는 시편을 읽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의도적인 모호함을 어휘적(lexical), 음운적(phonetic), 문법적(grammatical)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했다.¹⁵⁾ 야누스 평행대구 또한 두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지 모호하게 되어 있다. 이전의 연구는 두 의미가 혼재되어 나올 경우 두 의미를 활용한 문학기법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야누스 평행대구의 발견으로 인하여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두 의미 모두를 본문의 의미로 수용해 시인이 전하고자 했던 기발하고도 풍성한 언어유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노겔은 율기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의 문학적 의미에 대해 “율기에 나타난 수많은 위트와 재치는 단순한 문학적인 화려함이나 시적 기교의 발현이 아니라 한 수 위의 지혜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¹⁶⁾ 이처럼 야누스 평행대구는 단순한 시적기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문학적 역동성을 보여준다. ‘문학적 역동성’이란 복잡한 의미의 복합체 성격을 지닌 문학 작품 내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얽힌 가운데 구체성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활력적인 이미지이다. 복합적 성격의 문학작품은 읽는 즉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다양한 요소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적응과 재적응의 과정을 통해 의미가 수용될 수 있다.¹⁷⁾ 위에서 언급한대로 야누스 평행대구는 다의미, 언어유희,

15) P. R. Raabe, “Deliberate Ambiguity in the Psalter,” *JBL* 110:2 (1991), 213-27.

16) S. Noegel, “Janus Parallelism in Job and Its Literary Significance,” *JBL* 115:2 (1996), 319-20.

모호함이 어우러진 복합적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문학적 역동성을 파악하기에 훌륭한 예가 된다. 특히 두 의미가 앞뒤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미지가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미지가 더 풍성하게 생성된다.

야누스 평행대구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진 연구는 없다. 야누스 평행대구가 밝혀진 후에 이루어진 번역 혹은 다의미를 지닌 모호한 경우, 다의성을 번역에 반영한 예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본문에서 하나의 의미로 번역을 하고, 또 다른 의미를 각주에 제시하는 경우이다. 우리말 『개역개정』의 경우가 그렇다(창세기 6:3과 아래에서의 논의를 보라).¹⁸⁾ 둘째, 두 의미를 병렬로 제시하거나 두 의미를 연결된 하나의 의미로 만들어 본문에 싣는 경우이다. 그 예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Be not afraid, Avram,

I am a *delivering-shield* to you, (이텔릭체는 필자에 의한 것임)

Your reward is exceedingly great (창 15:1).¹⁹⁾

2. 창세기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 그 역동성과 한글 번역

2.1. 6:3

וַיֹּאמֶר יְהוָה לְאַבְרָהָם רַחוּם בְּאַדָּם לְעֹלָם
בְּשֵׁנָם הוּא בְּשֵׁךְ

17) M. Perry, "Literary Dynamics: How the Order of a Text Creates its Meanings(With an Analysis of Faulkner's 'A Rose for Emily')," *Poetics Today* 1:2 (1979), 35.

18) 언어유희의 경우 한글 번역의 경우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본문에 문자대로의 번역을 제시하고, 각주로 그 의미를 풀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레미야 1:11을 보라. 또한 야모스 6:13에 대한 『새번역』을 보라.

19) Everett Fox, *The Five Books of Moses, The Schocken Bible*, vol. 1 (New York: Schocken Books, 1995), 65. 이 구절에 관한 논의는 아래를 참조하라.

וְהָיָה יָמֵי מַאֲכָה וְעֶשְׂרִים שָׁנָ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²⁰⁾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 (개역개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백이십년이다.” (새번역)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들은 백이십 년밖에 살지 못한다.” (주교회의 번역)

이 구절은 노아 홍수 이야기의 도입부로 홍수의 원인을 설명하는 단락
(6:1-4) 가운데 위치한다. 이 단락은 구약성서 가운데 가장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며, 그 가운데서도 3절이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²¹⁾ 하
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를 아내로 삼았다는 1-2절의 결과로 인한 설명으로 3절이 나온다. 3절의

20) 『개역개정』은 각주에 ‘육신이므로 범죄함이라’를 제공한다. 이것은 아누스 평행대구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본문 해석에서의 소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21) 스킨너는 그의 주석에서 3절의 난해한 부분을 [...]으로 처리하였다. 다음을 보라. J.
Skinn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ICC (Edinburgh: T
& T Clark, 1930), 143-44. 많은 학자들은 이 단락을 신화의 한 부분에서 가져와
본문에 위치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 결과 신화적인 색채는 옅어지고 노아 홍수의 원인을
설명하는 역사적인 자료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다. 그 외의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K. A. Mathews, *Genesis 1-11:26*, NAC 1A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96), 322-39.

의미 파악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은 위에서 마소라 본문을 나누어 둔 3행 가운데 2행의 세 단어이다. 이에 관한 번역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이라”/ “육신이므로 범죄함이라” (개역개정),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새번역),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니”(주교회의) 등으로 나누어진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개역개정』은 각주에 “육신이므로 범죄함이라”라고 별도의 의미를 첨가한다.

이 구절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를 밝힌 학자는 크리스첸센(D. L. Christensen)이다.²²⁾ 그는 이 구절을 분석하면서 음절과 유사한 모라(mora)라는 개념을 도입해 숫자를 센다.²³⁾ 이 구절에서 **מִי־וְיָ**를 축으로 하여 이전의 모라 숫자가 28개이며 이후의 모라 숫자가 29개이므로, 구조적으로 **מִי־וְיָ**이 양쪽의 평행을 이루는 가운데에 위치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크리스첸센은 구조적인면 뿐만 아니라 의미에 있어서 양쪽과 평행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크리스첸센은 이 구절에서의 **מִי־וְיָ**은 야누스 평행대구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because of their going astray/ in that”이라는 이중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⁴⁾ 이 구절에서의 핵심어는 **מִי־וְיָ**이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מִי־וְיָ**를 전치사 **מִי**와 관계대명사 **וְיָ**의 줄임말 형태인 **וְיָ**²⁵⁾와 ‘또한’을 의미하는 부사 **מִי**가 합성된 것으로 보고 이 단어의 의미를 ‘그 점에서’(in that, inasmuch as) 혹은 ‘왜냐하면’(for, because)이라고 파악한다. 즉 ‘때문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מִי־וְיָ**와 유사한 형태이다(창 39:9,

22) Duane L. Christensen, “Janus Parallelism in Genesis 6:3,” *Hebrew Studies* 27 (1986), 20-24.

23) ‘모라’는 일본어의 가나(kana)체계에서 나온 것으로, 각각의 모라에 하나의 가나를 둔다. 이는 음절(syllable)과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난다. 크리스첸센은 음절수에 각각의 장모음에 대해 추가로 한 음절을 더하였다고 설명한다. Christensen, “Janus Parallelism in Genesis 6:3,” 23, n.9.

24) Christensen, “Janus Parallelism in Genesis 6:3,” 21.

25) 이 단어는 아가서 32회, 전도서에 68회나 관계대명사로 나온다. 페니키아어, 아람어에서 관계 대명사는 이 단어와 유사한 *di*가 사용된다. 그러나 오경에서 이 단어는 본문을 제외한다면 한번도 안 나온다.

23).²⁶⁾ 그 의미로 사용된다면 **אָנָּח**은 이전 행과 관련이 된다. 즉 이전 행의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그는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이다. 칠십인역은 이 행을 *διὰ τὸ εἶναι αὐτοῦς σάρκα*(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이기 때문이다)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글 및 영어 번역은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 점에서’로 되어있다. 이 번역은 **כִּי** **וְהָיָה**(그가 육신이다)라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의 동기를 안내하는 이전 행의 결론으로 기능하므로,²⁷⁾ 이전 행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즉 ‘그가 육신인 이상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악한 행동이 아니라 육신의 형태를 띤 인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1-2절에서 인간이 저지른 심판받을 범죄적 행동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1-2절과 연결이 안된다. 이 번역만으로는 이 구절 전후의 신학적 맥락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둘째, **אָנָּח**을 전치사 **כִּי**와 동사 **וְהָיָה**의 연계형 부정사와 복수 3인칭 접미어 **ִּם**(**ם**)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경우 히브리어 모음은 **אָנָּחִים**이 된다. 히브리어 **וְהָיָה**는 구약성서에서 무의식적인 죄가 아니라 의도적인 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²⁸⁾ 이 해석은 고대 마소라 사본들에 의하여 이미 시도되었다.²⁹⁾ 탈군은 “그들은 살덩이이며 그들의 행동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였다.³⁰⁾ 탈군의 번역에서 ‘그들의 행동은 악하기 때문이다’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אָנָּחִים**에 대한 번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의미에

26) G. 웬함, 『창세기 1-15』, WBC (서울: 솔로몬, 2006), 286.

27) V.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267.

28) J. Milgrom, “The Cultic Šegāgā and its Influence in Psalms,” *JQR* 58 (1967-68), 118; *HALOT*, 1412-13.

29) C. D. Ginsburg, *Introduction to the Massoretico-Critical Edition of the Hebrew Bible* (New York: Ktav, 1996 repr.), 1021; *BDB* 7683 (p. 993) 또한 ‘by reason of their going astray’로 번역한다. C. Westermann, *Genesis 1-11*, trans. J.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1994), 375-76; V. Hamilton, *Genesis 1-17*, 267-68.

30) 배철현 역주, 『타르쿰 웅켈로스 창세기』 (서울: 한님 출판사, 2001), 144-45.

따라 이 행을 번역하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는 육신이 되었다’이다. 이 때 육신이라는 의미는 썩어 없어질 연약한 존재를 가리킨다. 이 번역에 나타난 주 의미인 ‘인간의 범죄’는 1-2절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라는 범죄뿐만 아니라, 120년으로 수명이 줄어든 이유와 4절의 네피림의 등장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음 행과 관련되어 있다.³¹⁾

따라서 창세기 6:3의 מִיָּמִינוֹ는 ‘그 점에서, 왜냐하면’ 및 ‘그들의 범죄로’라는 두 의미를 지닌 다의어로 전자는 이전 행과, 후자는 다음 행과 관련되어 있는 야누스 평행대구 형성을 이루게 하는 핵심어이다. 따라서 이 단어의 번역은 단독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뒤이어 나오는 מִיָּמִינוֹ와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역개정』은 전자의 의미를 반영해 본문에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로 번역했으며, 각주에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므로 범죄함이라’는 후자의 의미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6:3의 מִיָּמִינוֹ מִיָּמִינוֹ는 ‘그러므로 그가 육신이 되었다’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

6:3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 문학적 복합체(literary complexes)이다. 이중 의미가 모호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언어유희적 성격을 지닌다. 아울러 모호함 속에 이중 의미가 숨겨져 있다. 6:3은 6:1-2과 4절의 작가의 서술(narration) 사이에 끼인 여호와와 말씀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므로 더 신비롭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서술자는 독자들에게 더 깊은 지혜와 높은 관심을 요구한다. 야누스 평행대구의 모호함을 독자들로 하여금 신비감을 느끼게 해 집중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중의 의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고도의 문학적 위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중의 의미는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여 신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를 상쇄시켜준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의 야누스 평행대구는 문학적, 신학적 역동성을 보여준다.

31) 크리스첸슨은 두 의미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은 지적했지만, 고든이 이야기했던 앞 뒤 행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앞 뒤 행과 관련된 해석은 필자의 주장이다.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표현은 3:6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본 다음에 가졌던 욕망과 유사하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개역개정』과 천주교 『주교회의 번역』은 첫 번째 의미를 따르고 있지만, ‘그들은, 사람들은’이라는 단어의 삽입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³²⁾ 즉 마지막 인칭 접미어 ‘그들’을 첨가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개역개정』처럼 두 의미를 본문과 각주로 처리한다면 ‘그러므로-그들의 범죄로’로 번역할 수 있다. 반면 두 의미를 합하여 본문에 반영한다면 ‘그들이 죄를 짓는다는 의미에서’로 번역할 수 있다.

2.2. 15:1b

אֱלֹהֵיךָ אַבְרָם
אָנֹכִי מִיָּנִן לָךְ
שְׂכָרְךָ הַרְבֵּה מְאֹד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개역개정)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새번역)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주교회의 번역)

32) NIV는 “they are mortals”로, KJV은 “For that he also is flesh”로, NRSV는 “For they are mortals”로 번역하고 있다. KJV은 첫 번째 의미를 따른 직역에 가까우며, NIV 및 NRSV는 ‘그들을’ 추가해 의역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한 말로 최근의 번역은 산문이 아니라 시로 번역된다.³³⁾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하는 단락(15:1-6)에 나온다. 전승사 비평에 따르면 이 단락은 ‘약속 내러티브’에 속한다.³⁴⁾ 약속이 주어지는 이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아브람이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과 치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전리품의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다. 이어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전리품을 모두 가지라고 제안한다. 아브람은 전쟁에 참여한 자신의 편 사람들의 몫만 차지하며 소돔 왕이 준 큰 선물을 물리쳤다. 그 후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후 언약을 체결한다. 외견상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구절의 번역에서 가장 논쟁적인 단어는 ‘방패’로 번역된 히브리어 קַשְׁטֶלֶת 이다. 대부분의 번역들과 학자들은 ‘방패’로 번역하지만, 일부의 학자들은 ‘선물’을 주장한다. ‘방패’와 ‘선물’이라는 다의미를 지닌 15:1a에서 야누스 평행대구를 처음으로 밝힌 학자는 렌드스버그(G. A. Rendsburg)이다.³⁵⁾ 히브리어 קַשְׁטֶלֶת 은 15:1a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히브리어 קַשְׁטֶלֶת 은 ‘방패’를 의미한다. 방패는 전사들에게 있어서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기이다. 이 단어의 어근은 gnn “덮다, 둘러싸다, 방어하다”이다.³⁶⁾ 웬함(G. Wenham)은 이 단어에 대해 군사적 은유(삼하 22:3, 31; 시 3:3; 115:9-11 등)로 풀이하며,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기 백성의 방패(시 84:12-13; 잠 30:5), 특히 왕의 보호자라는 개념으로 자주 나오고 앗시리아 본문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한다.³⁷⁾ 보호를 나타내는 은유로 성서에 자주 나온다(신 33:29; 시 3:4; 7:11; 잠 2:7; 30:5).³⁸⁾

33) New American Bible, New Jewish Publication Society Version 등. 시와 산문의 정확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창세기의 본문은 주로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시가 나오기도 한다. 이전에 산문으로 다루어진 본문도 시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34) C. Westermann, *Genesis 12-36* (Minneapolis: Augsburg, 1985), 216.

35) Gary A. Rendsburg, “Notes on Genesis XV,” *VT* 42:2 (1992), 266-72.

36) *BDB*, 171.

37) 그러므로 웬함은 ‘마겐’을 ‘선물’로 고쳐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웬함, 『창세기 1-15』, 568.

38) J. Skinner, *Genesis*, 278.

그러므로 이 의미는 앞 행의 ‘두려워 말라’는 말과 연결된다. 아웨께서 아브람에게 방패가 될 것을 천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히브리어 어근 mgn은 ‘주다, 수여하다’를 의미한다. 이 어근은 우가리트어 및 페니키아어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³⁹⁾ 이 어근은 구약성서에서 자주 ‘주다, 수여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창 14:20; 잠 4:9; 호 11:8).

חָתַן לְרֵאשִׁיף לְיִתְחִין עֲטָרַת תְּפִאֲרַת תְּמַנְנֶנּוּךָ

그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잠 4:9)⁴⁰⁾

케슬러(M. Kessler)는 15:1b의 מִגְּנִין을 14:20의 miggēn과 연결시키고 15:1b אֲשֶׁר־מִגְּנִין צָרִיף בְּיָדְךָ “니의 적을 네 손에 넘기신”을 “I am about to deliver to you a very great reward”로 번역한다.⁴¹⁾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본문의 māgēn을 분사형 mōgēn이나 명사형 māgān으로 수정해 이 단어의 해석을 ‘주다’라는 어근과 연결해 해석한다.⁴²⁾ 이 의미를 택하면 ‘나는 너에게 베푸는 자(benefactor)’이다.⁴³⁾ 이 번역은 다음 행의 ‘니의 상급(שְׂכָרְךָ)’과

39) M. O'Connor, "Semitic mgn and its Supposed Sanskrit Origin," *JAOS* 109 (1989), 25-32. 우가리트어에서 이 단어는 ma-ga-ni, 페니키아어에서 māgōn으로 나온다.

40) 잠언 6:11의 מִגְּנִין בְּכַאֲשִׁיף의 번역 역시 난해하다. 『개역개정』은 ‘군사같이’로, 『새번역』은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새번역』은 각주에 ‘또는 ‘거지처럼’으로 다른 번역을 제시한다. 『새번역』의 각주에 처리된 ‘거지처럼’은 히브리어 מִגְּנִין을 ‘방패’가 아니라 ‘주다’라는 어근에서 온 것이다. 다음을 보라. D. A. Garrett,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NAC 14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93), 96-97.

41) M. Kessler, "The Shield of Abraham?," *VT* 14(1964), 494-97. 이 번역은 위의 ‘1. 시작하는 말’에서 인용한 Fox의 번역에 반영되어 있다.

42) M. J. Dahood, *Psalms 1*, AB (New York: Doubleday, 1966), 16; "Northwest Semitic Notes on Genesis," *Biblica* 55 (1974), 78; O. Loretz, "mgn-‘Geschenk’ in Gen 15, 1," *UF* 6 (1974), 492; M. O'Connor, "Yahweh the Donor," *Aula Orientalis* 6 (1988), 47-60.

43)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연결된다. ‘상급’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škr*와 ‘주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ntn*과의 결합은 구약성서 내에서도 찾을 수 있다(출 2:9; 왕상 5:20).⁴⁴⁾ 로레츠(O. Loretz)는 15:1b에서 *mgn*(선물)과 *škr*(상급) 사이의 완벽한 짝단어(word pair)의 형성으로 인하여 이 구절을 가나안 시인의 시적 기교에 의한 완벽한 2행시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나는 너의 선물이다. 너의 풍성한 상급.”⁴⁵⁾ ‘베푸는 자’로서의 여호와는 이 구절의 앞 단락인 14:21-24과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전리품을 통째로 선물로 주려했지만 아브람은 거절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 얻게 되는 재물에 대한 거부이다.⁴⁶⁾ 대신에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선물을 약속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브람에 대한 특별한 선물의 약속은 그가 고향을 떠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었다(창 12:1-4).

15:1에서의 *mgn*에 대한 의미의 다양성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유대교 랍비들의 토론에서도 나온다. 야웨가 ‘보호자’이나 ‘베푸는 자’이나 대한 논쟁은 15:1의 해석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⁴⁷⁾ 히브리어 어근 *mgn*은 ‘방패’ 및 ‘베푸는 자’라는 두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mgn*이 가진 두 의미는 반드시 두 의미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두 의미 가운데 방패를 뜻하는 ‘보호자’는 앞 행의 ‘두려워 말라’와 관련되어 있고, ‘베푸는 자’는 다음 행의 ‘큰 상급’과 관련된 야누스 평행대구이다. 한편 방패로서의 기능은 하나님의 보호적 기능 가운데 수동적인 면인 반면에, 베푸는 자로서의 기능은 하나님의 보호적 기능 가운데 능동적인 면이다.

of Israe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4.

44) Rendsburg, “Notes on Genesis XV,” 267.

45) O. Loretz, “*mgn*-‘Geschenk’ in Gen 15, 1,” 492.

46) 아브람은 “네 말이 내가 아브람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 속에 잘 드러나 있다.

47) Accio E. Cairus, “Protection and Reward: The Significance of Ancient Midrashic Expositions on Genesis 15:1-6,” Ph. D. Dissertation (Andrew University, 1988), 220-21.

15:1b에서의 문학적 역동성이 작용하는 문학적 상황은 14:17-24과 15:2ff의 서술 사이에 놓인 여호와와 아브람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14:17-24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리품의 분배에서 아브람이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다. 아브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다. 이 문맥은 15:1b의 방패/상급이라는 두 의미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여호와는 아브람의 방패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얻게 될 재물을 거부해 15b의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인격적 근거로 기능한다. 즉 사람이 주는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될 상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람의 신앙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15:1b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 역시 이중 의미를 통해 모호함과 언어유희를 즐길 수 있는 문학적 역동성을 제공한다. 모호함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 문학적 역동성은 이전 행뿐만 아니라 이전 단락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중적 의미의 역동성을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따라서 15:1에서의 ‘방패/베푸는 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합하여 서로 보충해주며 아브람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완전한 보호자 및 베푸는 자의 역할로 향하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한 대부분의 번역은 ‘방패’로 되어 있다. 한글 『개역개정』도 ‘방패’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야누스 평행대구의 다의성을 담아서 번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두 의미를 담아 하나를 본문에 다른 하나를 각주처리 방식으로 한다면 ‘방패-베푸는 자’로 번역을 제안한다. 두 의미를 동시에 담는다면 ‘방패요 베푸는 자’⁴⁸⁾로 번역할 것을 제시한다.

2.3. 49:26a

בְּרֶכֶת אָבִיךָ יְיָ

48) 앞의 각주 19를 참고하라. 쇼켄 성경에서의 번역을 따른 것이다.

עַל-בְּרַכַּת הַזֵּרִי עַד
תְּאֵוֹת גְּבֻעַת עוֹלָם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개역개정)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새번역)

네 아버지의 복은
예로부터 있던 산들의 복보다
처음부터 있던 언덕들의 탐스러운 것들보다 크다(주교회의 번역)

이 구절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기도(49:22-26)에 나온다. 창세기 49:26a의 번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עַד הַזֵּרִי의 번역은 한글 번역에 있어서도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위에서 보듯 『개역개정』은 ‘내 선조’로, 『새번역』 및 『주교회의 번역』은 각각 ‘태고적 산맥’ 및 ‘예로부터 있던 산들’로 되어 있다.⁴⁹⁾ 이 의미의 차이를 야누스 평행대구로 해석한 학자는 렌드스버그이다.⁵⁰⁾ הַזֵּרִי에 대한 의미는 모호하며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첫째, ‘내 조상’ 혹은 ‘내 선조’이다. 이 번역은 히브리어 어근 הרה ‘임신하다’에서 온 것이다. 원 의미는 ‘잉태한 자’이며 문맥상으로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리킨다. 이 의미로 번역한 것은 아람어 번역인 탈굼에서 찾을 수 있다. 탈굼 웅켈로스 및 위서(僞書)-요나단(Pseudo-Jonathan) 번역은 ‘나

49) 영어 번역에서도 두 의미를 다 찾을 수 있다. KJV는 ‘my progenitors’로 NASV은 ‘my ancestors’로 되어 있으며, NRSV는 ‘eternal mountains’로 NIV는 ‘ancient mountains’로 번역되어 있다.

50) Gary A. Rendsberg, “Janus Parallelism in Gen 49:26,” *JBL* 99:2 (1980), 291-93.

의 조상들'로 번역하였다. 불가타 역은 *patrum eius* '그의 조상들'로 유사하게 번역하였다.⁵¹⁾ 이 경우 עַרְוֹתָי는 '나의 오래된 조상들'을 의미한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다루고 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들은 신뢰할만한 자들이었다.

둘째, '산들'(mountains)이다. 이 번역은 '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 777에서 온 것이다. 이 경우 모음은 hā(w)rê로 수정되어야 한다.⁵²⁾ 이 번역은 70인역에 나타난다. עַרְוֹתָי를 '한결같은 산들'(ὁρέων μόνιμων)로 번역했다. 하박국 3:6의 הַרְרֵי עַרְוֹתָי 또한 70인역에서 '영원한 산'으로 번역되어 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매우 오래된 산들보다 더 크다'는 구절의 의미는 불확실하다. 다만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주요 산에 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산이 신의 거주지이므로 축복의 근원지라는 신화적 배경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⁵³⁾ 아울러 은유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든든하고 신뢰할만한 것의 상징이다.

49:26a עַרְוֹתָי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의미 및 역본들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는 본문을 수정하거나,⁵⁴⁾ 두 해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49:26a는 야누스 평행대구이므로 취사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이 평행대구에서 עַרְוֹתָי는 '나의 조상' 혹은 '산들'이라는 두 의미를 가지며, '나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이전 행의 אָבִיךָ '네 아버지'와, '산들'이라는 의미는 다음 행의 גְּבוּעֹת '언덕들'과 연결된다. 이 단어에 나타난 양 의미를 모두 파악하고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한 번역(의역)은 예루살렘 탈굼(Targum Yerushalmi)에서 찾을 수 있다.

네의 아버지의 축복이 덧붙여지길 바란다.

51) Rendsburg, "Janus Parallelism in Gen 49:26," 291-92.

52) *BDB*, 223.

53) J. A. Skinner, *Genesis*, 532.

54) E. A. Speiser, *Genesis*, AB (Garden City: Doubleday, 1964), 363, 369-70. 스페이저는 히브리어 עַרְוֹתָי를 הַרְרֵי로 수정한 후 '영원한 산들'로 번역하였다.

너를 축복했던 산들같은 아브라함과 이삭,
너를 축복했던 언덕같은 사라와 리브가, 라헬과 레아와 같은
네 어머니의 축복과 더불어⁵⁵⁾

49:26a에 나타난 문학적 역동성은 ‘나의 조상, 산들’이라는 두 의미가 합하여 전후관계의 의미가 서로 연결됨으로 발생한다. 두 의미가 합하여 전해주는 의미는 각각의 의미로 기능했을 때보다 요셉에 대한 축복을 훨씬 풍부하게 전달해준다. 위의 예루살렘 탈굴의 해석에서 보듯 두 의미가 상호 보충하며 풍성한 축복의 이미지를 배가시켜준다. 49:26a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지만 25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전능자’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49:26a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앞의 두 구절처럼 여호와와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신비적 모호함을 갖는 구절로 볼 수 있다. 신비적 모호함이 야누스 평행대구에 스며들어 있다.

49:26a의 **כְּהַרְרֵי**를 야누스 평행대구로 보고 각각의 의미를 반영해 각주 처리방식으로 한다면 ‘내 조상-태고적 산맥’으로의 번역을 제안한다. 두 의미를 모두 반영해 번역한다면 본문의 정황상의 의미를 고려해 ‘든든한 산맥같은 조상’으로 제안한다.

3. 맺는 말

구약성서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고대 근동 당시의 오래되고 뛰어난 문학적 전통을 활용해 구약성서를 기록하고 수집해 그들만의 경전을 완성하고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구약성서에 활용된 다양한 문학적 기법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새로운 기법들이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드러난 야누스 평행대구는 동일한 단어내의 다의미를 활용한

55) Rendsburg, “Janus Parallelism in Gen 49:26,” 292.

언어유희(polysemic wordplay)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두 개의 의미를 통해 앞뒤의 행과 연결되어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모호성을 띠게 된다. 그 모호성은 독자의 관심을 더 끌게 하고, 감추어진 의미파악을 통해 보다 큰 위트를 느끼게 된다. 아울러 두 의미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성은 앞뒤 단락으로까지 연결되어 더 큰 의미의 복합체를 형성하고 풍성한 문학적 이미지를 생성하게 됨을 창세기에 나타난 평행대구는 보여준다. 창세기에 나타난 평행대구는 모두 여호와와의 말씀과 관련되어 나온다. 6:3과 15:1b의 경우 여호와와의 직접적인 말씀에 나오며, 49:26a의 경우 여호와와의 말씀과 밀접한 관련 가운데 나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숨겨둔 신비로운 말씀으로 기능하며, 여호와와의 언어유희로 최고의 위트를 보여준다. 야누스 평행대구의 모호성 역시 이러한 신비로움을 증가시켜 준다.

최근의 번역이론은 크게 ‘동등성’과 ‘스코포스’의 개념으로 나뉜다. 유진 나이다의 ‘동등성 이론’이 수 십 년간 주를 이루다가 오늘날에 이르러 ‘스코포스 이론’으로 전환되고 있다.⁵⁶⁾ 원문의 의미 파악이 이루어진 후 수용언어의 다양성을 고려한 번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보아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번역의 대상이 되는 원문의 의미 형성 자체도 수용 언어와 동등한 의미체계로 치환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모호한 경우도 많다. 원문자체가 모호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 수용언어로의 번역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고도의 문학성을 내포한 시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 심하다.

언어유희는 원문으로 읽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어감과 기발한 착상을 실감할 수 있다. 히브리어 속에 담긴 소리와 의미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번역된 언어로 읽는다면 추가적인 설명 없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다의미를 활용한 야누스 평행대구의 경우 대부분의 번역은 둘 중 하나의 의미를 선택해 번역해오면서 원문에서의 의도를 드러내지 못했다. 두 의미 중 어떤 의미가

56) 조지윤, “성서 번역자 양성 과정을 위한 제언-스코포스 이론과 번역의 실재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 (2003), 124.

더 적절하나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번역해왔다. 야누스 평행대구의 경우 원저자가 언어유희의 의도를 가지고 당시의 뛰어난 문학적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본문의 연구를 통해 그 기법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 번역에 반영되지 못했다. 한글 번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다의미나 언어유희의 경우 간헐적으로 각주처리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번역의 임무는 원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실하게 수용자의 언어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소리와 의미가 결합된 원문에서의 언어유희를 수용자의 언어로 곧바로 전환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원문에서의 의미를 가급적 그대로 번역에 담는 일은 번역자의 이상이자 책무이다. 이중 의미를 담은 야누스 평행대구의 경우 번역과 각주 번역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중 의미를 모두 담아 번역할 수도 있음을 위에서 제시하였다.

이 글은 창세기 6:3; 15:1b; 49:26a의 야누스 평행대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번역 문제를 다루었다. 구약성서 번역에 있어서 이 주제는 다의미의 언어유희(polysemic wordplay)와 더불어 다루어진다. 그 성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한글번역에 반영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이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야누스 평행대구, 문학적 역동성, 번역이론, 스코포스 이론, 다의성, 창세기 6:3, 창세기 15:1, 창세기 49:26

<Key Words>

Janus parallelism, literary dynamics, translation theory, skopos theory, polysemy, Genesis 6:3, Genesis 15:1, Genesis 49:26

* 접수일 2018년 9월 7일, 수정일 2018년 10월 2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0월 7일

참고문헌

- 강승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아가 번역의 개정을 위한 주석적 제안,” 『구약논단』 16 (2010), 93-113.
- 배철현, 『타르쿰 옹켈로스 창세기』, 서울: 한남 출판사, 2001.
- 웬합, G., 『창세기 1-15』, WBC, 서울: 솔로몬, 1987.
- 유윤종, “구약성서 히브리 시 평행대구 연구의 최근 동향,” 『기독교신학논총』 40 (2005), 5-28.
- 유윤종, “언어유희와 아모스의 심판신탁,” *Canon&Culture* 10:1 (2016), 123-46.
- 조지윤, “성서 번역자 양성과정을 위한 제안-스코포스 이론의 번역의 실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 (2003), 121-40.
- 하계상, “창세기 2-3장의 히브리어 아룸, 아룸, 에룸,” 『구약논단』 19 (2013), 144-171.
- Basser, H., “Did Rashi Notice a Janus Parallelism in Ezek 20:37?”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8:14 (2008), 2-4.
- Cairus, Aecio E., “Protection and Reward: The Significance of Ancient Midrashic Expositions on Genesis 15:1-6,” Ph.D. Dissertation, Andrew University, 1988.
- Cassuto, A.,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One. From Adam to Noah*, Jerusalem: Magnes, 1961.
- Ceresko, A. R., “Janus Parallelism in Amos’s ‘Oracles against the Nations’(Amos 1:3-2:16j),” *JBL* 113:3 (1994), 485-90.
- Christensen, Duane L., “Janus Parallelism in Genesis 6:3,” *Hebrew Studies* 27 (1986), 20-24.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Dahood, M. J., *Psalms 1*, AB, New York: Doubleday, 1966.
- Dahood, M. J., “Northwest Semitic Notes on Genesis,” *Biblica* 55 (1974), 76-82.

- Fox, E., *The Five Books of Moses*, The Schocken Bible volume 1, New York: Schocken Books, 1995.
- Garrett, D. A.,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NAC 14,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93.
- Ginsburg, C. D., *Introduction to the Massoretico-Critical Edition of the Hebrew Bible*, New York: Ktav, 1996 reprinted.
- Gordon, C. H., "New Directions," *The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of Papyrologists* 15 (1978), 59-66.
- Hamilton, V. P., *The Book of Genesis 1-17*, Grand Rapids: Eerdmans, 1990.
- Herzberg, Walter, "Polysemy in the Hebrew Bible," 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79.
- Kessler, M., "The Shield of Abraham?" *VT* 14 (1964), 494-97.
- Kselman, J. S., "Janus Parallelism in Psalm 75:2," *JBL* 121:33 (2002), 531-32.
- Loretz, O., "mgn-'Geschenk' in Gen 15, 1," *UF* 6 (1974), 492.
- Mariaselvam, Abraham, *The Song of Songs and Ancient Tamil Love Poems: Poetry and Symbolism*,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88.
- Mathews, K. A., *Genesis 1-11:26*, NAC 1A,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96.
- Milgrom, J., "The Cultic Šegāgā and its Influence in Psalms," *JQR* 58 (1967-68), 115-125.
- Noegel, S. B., "A Janus Parallelism in the Gilgamesh Flood Story," *Acta Sumerologica* 13 (1991), 419-21.
- Noegel, S. B., "An Asymmetrical Janus Parallelism in the Gilgamesh Flood Story," *Acta Sumerologica* 16 (1994), 306-308.
- Noegel, S. B., "A Janus Parallelism in the Baal and 'Anat Story',"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21:1(1995), 91-94.
- Noegel, S. B., "Another Janus Parallelism in the Atra-Hasis Epic," *Acta Sumerologica* 17 (1995), 342-44
- Noegel, S. B., "Janus Parallelism & Its Literary Significance in the Book of Job, with Excurses on the Device in Extra-Jobian and Other Ancient Near

- Eastern Literatures,” Ph. 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1995.
- Noegel, S. B., *Janus Parallelism in the Book of Job*, JSOTSS 22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Noegel, S. B., “Janus Parallelism in Job and Its Literary Significance,” *JBL* 115:2 (1996), 313-20.
- O’Connor, M., “Yahweh the Donor,” *Aula Orientalis* 6 (1988), 47-60.
- O’Connor, M., “Semitic mgn and its Supposed Sanskrit Origin,” *JAOS* 109 (1989), 25-32.
- M. Perry, “Literary Dynamics: How the Order of a Text Creates its Meanings With an Analysis of Faulkner’s ‘A Rose for Emily,’” *Poetics Today* 1:2 (1979), 35-64.
- Raabe, P. R., “Deliberate Ambiguity in the Psalter,” *JBL* 110:2 (1991), 213-27.
- Rendsburg, G. A., “Janus Parallelism in Genesis 49:26,” *JBL* 99 (1980), 291-93.
- Rendsburg, G. A., “Double Polysemy in Genesis 49:6 and Job 3:6,” *CBQ* 44 (1982), 48-51.
- Rendsburg, G. A., “Notes on Genesis XV,” *VT* 42:2 (1992), 266-72.
- Skinner, J.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ICC; Edinburgh: T&T Clark, 1930.
- Speiser, E. A., *Genesis*, AB, Garden City: Doubleday, 1964.
- Tsumura, D. T., “Janus Parallelism in Nah. 1:8,” *JBL* 102:1 (1983), 109-11.
- Tsumura, D. T., “Janus Parallelism in Hab. 3:4,” *VT* 54:1 (2004), 124-28.
- Watson, W. G. E., “The Pivot Pattern in Hebrew, Ugaritic and Akkadian Poetry,” *ZAW* 68 (1976), 239-53.
- Watson, W. G. E.,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JSOTS 26, Sheffield: JSOT Press, 1984.
- Westermann, C., *Genesis 1-11*, Translated by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1994.
- Westermann, C., *Genesis 12-36*, Translated by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1985.

Westermann, C., *Genesis 37-50*, Translated by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1994.

<초록>

창세기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의 문학적 역동성과 한글 번역

유윤중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창세기 6:3; 15:1; 49:26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의 작용원리와 문학적 역동성 및 한글 번역 문제를 다룬다. 야누스 평행대구는 3행으로 된 시에서 가운데 행의 한 단어가 이중의미를 지니며 앞뒤와 연결된 문학적 복합체이다. 따라서 야누스 평행대구는 다양한 문학적 역동성을 일으키며 전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확대, 보충,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창세기 6:3은 가운데 행의 **אֲנֹכִי**가 이중의미를 지닌다. ‘때문에’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이다. ‘때문에’라는 의미는 1-2절의 결론으로 기능하며,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는 4-5절의 이유로 나온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므로 더 신비롭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서술자는 독자들에게 더 깊은 지혜와 높은 관심을 요구한다. 야누스 평행대구의 모호함을 독자들로 하여금 신비감을 느끼게 해 집중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중의 의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고도의 문학적 위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중의 의미는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여 신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를 상쇄시켜준다. 창세기 15:1에서는 **אֲנֹכִי**가 ‘방패’와 ‘선물’이라는 이중의미를 지닌다. ‘방패’는 이전 행의 ‘두려워말라’와 연결되며, ‘선물’은 이후 행의 ‘보상’과 관련된다. 15:1에서의 ‘방패/베푸는 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합하여 서로 보충해주며 아브람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완전한 보호자 및 베푸는 자의 역할로 향하고 있다. 49:26에서는 **עַל יְדֵי**가 이중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나의 조상들’이며, 둘째

는 ‘산들’이다. 첫 번째 의미는 이전 행의 ‘나의 아버지’와 연결되며, 두 번째 의미는 이후 행의 ‘언덕들’과 관련된다. 두 의미가 합하여 전해주는 의미는 각각의 의미로 기능했을 때보다 요셉에 대한 축복을 훨씬 풍부하게 전달해준다. 위의 예루살렘 탈굼의 해석에서 보듯 두 의미가 상호 보충하며 풍성한 축복의 이미지를 배가시켜준다.

아울러 저자는 이 글에서 번역에 있어서 야누스 평행대구를 본문 내에 담는 방법이나 각주로 처리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Abstract>

Janus Parallelism in the Book of Genesis: Its Literary Dynamics and Korean Translation

Prof. Yoon Jong Yoo
(Pierson School of Theology, Pyeongtaek University)

Since Gordon discovered so-called ‘janus paraellism’ in Song of Songs 2:12, many scholars have expanded the lists of janus parallelism in the poetic texts of the Old Testament as well as in the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This study pursues to demonstrate how the janus parallelism works, its literary dynamics, and the issue of its translation attested in the book of Genesis into Korean. The three examples (6:3; 15:1b; 49:26a) for the analysis of janus parallelism are chosen from the book of Genesis.

In 6:3 the first word **בְּשֵׁנֵם** in the middle line has double meanings. First it denotes ‘in that, inasmuch as’ which is similar to **בְּאַשְׁרֵי** (Gen 39:9, 23). The meaning functions as a conclusion of the preceding line. Second, it has meaning of ‘by their erring’ from another Hebrew root *šgg*. The meaning explains the reason for the following line. In 15:1b, the second word **מִגֵּן** in the middle line has double meanings. First, it denotes ‘a shield’ derived from root *gmn* ‘cover, surround, protect.’ It is connected with the preceding line ‘Do not fear.’ Second, it has meaning of ‘delivering’ derived from root *mgn* ‘give.’ It is related closely with the following line ‘your reward.’ In 49:26a, the third word **עַד הַרְרֵי עֵד** in the middle line has two meanings. First, it denotes ‘my old ancestors’ or ‘my old forefathers’ derived from *hrh* ‘conceive.’ It is connected with ‘your father’ in the preceding line. Second, it means ‘old mountains’ derived from root *hr*

‘mountain’ which is related with ‘old hills’ in the following line. In each literary context, literary dynamics are working with sophisticated literary connection.

It is required crucially for a translator to deliver the polysemic meanings of the text into the Korean Version of the Bible. The author suggests two ways of delivering the word having double meanings of the janus parallelism. First, a translator puts one meaning in the text, the other meaning in the footnote. Second, a translator puts two meanings in the text. The author expects that the polysemic meaning of the poetic texts in the Old Testament would be reflected in the next Korean Version.